

장서개발의 교육 : 교과과정의 연구

Education for Collection Development : A Study on the Curriculum

엄 영 애(Young-Ai Um)*

〈 목 차 〉

- | | |
|-------------------|-------------|
| I. 서론 | 2. 교육의 내용 |
| II. 장서개발교육의 변화 | IV. 결론 및 제언 |
| III. 장서개발 교과목의 분석 | 1. 결론 |
| 1. 교과목명의 변화 | 2. 제언 |

초 록

본 논문의 목적은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장서개발교육의 변화와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서선택으로 출발한 교과목이 장서개발 및 장서관리로 바뀌게 된 배경을 살펴본 후, 교과목명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교육의 내용은 장서개발 관련 교과목의 소개 및 개요를 모아 분석하였다. 1980년대까지도 대부분의 학과가 자료선택(론)으로 가르치던 것이 1990년대에는 장서개발(론)로 변화하였으나 교육되는 과정의 개요를 분석한 결과는 과목 명은 달라졌으나 내용 및 교육의 목적은 자료선택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장서개발의 교육과 실행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how the education for collection development has been changed and what are the contents of the collection development-related courses. The author tried to search some historical backgrounds on how selection of books became collecti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As for the education for collection development, the changes in the course titles dealing with collection development were surveyed, and the contents of the courses provided by the Department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were analyzed. It was found out that though the course titles have been changed from selection of materials to collection development, the contents showed their emphases on such selection-oriented topics as selection tools and acquisitions. It is concluded that as far as the contents are concerned, most of the important components for collection development have been taught. Based on the findings, a few suggestions including that there should be efforts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theories taught at library schools and the practices performed by librarians are recommended.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서관학과 교수

I. 서 론

사람들에게 ‘도서관’이라는 단어가 연상시키는 의미는 다양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책들이 많이 있는 곳을 연상시킬 것이고, 혹자는 책을 빌려 주는 곳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한 나라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기관으로 이해될 수 있다. 최근에는 정보센터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러한 현상들이 모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로부터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료, 건물, 사서 및 이용자로 흔히 일컬어지는 도서관의 구성 요소들 가운데 도서관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도서관의 자료일 것이며, 이러한 자료를 모아서 유지하는 일들이 사서들의 장서개발의 기능인 것이다.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중요성은 일찍이 도서관의 기원을 모아진 자료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유추하는 사실로도 나타난다. 어쨌든 도서관의 봉사기능은 소장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전개되어 왔고 도서관에 부여된 사회적인 기능을 인류가 이룩해 놓은 문화적 유산인 기록자료의 활용 극대화라는 용어로 압축되어 사용하는 것을 보더라도 도서관 장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도서관의 자료들이 한 곳에 모아진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다양한 자료들이 한 도서관의 장서로 구성되기까지는 외부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치밀한 사전 계획과 구체적인 업무의 실행이 선행된 결과인 것이다. 장서관 특정 이용자 집단의 필요성과 요구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양질의 자료들을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오랫동안 모아놓은 집합체로 모든 도서관의 장서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개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도서관의 개념이 각기 다를 수는 있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서관은 장서나 자료 혹은 책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개념도 오늘날 최신의 정보기술, 특히 전자자료와 인터넷의 출현으로 상당히 달라져 가고 있으며, 장서의 소유보다는 정보에의 접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전히 도서관은 자료가 많이 모아진 곳이라는 인식이 더 팽배하고, 도서관에 소장된 장서의 중요성은 가까운 미래까지는 계속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양한 미사여구나 현학적인 언어 혹은 최신의 기술관련 용어들로 표현 가능할 것이나, 도서관은 여전히 기록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그리고 이용하는 곳으로, 이용자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봉사하는 조직이고 훌륭한 도서관이란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나 정보를 필요한 때에 그들이 원하는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도서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잘 개발된 장서로, 이는 모든 도서관 봉사의 기반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와 미래의 이용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장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사서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능력으로 이러한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장서개발의 교육은 사서직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주요한 임무인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학과에서 도서관의 장서개발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어떤 교과목 명으로 무슨 내용을 가르치는 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장서개발의 정의와 기능 및 장서개발 교육의 변화를 야기한 요인들을 문헌에서 추출하였다. 그것을 근거로 우리의 교육기관에서 장서개발의 교육이 어떻게 변해왔고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가를 조사하였다.

과거의 교과목 명은 1989년에 한국대학교육협회의 연구 보고서로 나온 “도서관학과 교육 프로그램개발연구”로부터, 그리고 현재의 교과목 명 및 교과목의 개요는 각 학과의 홈페이지와 대학 안내서에서 뽑았다.

연구의 의도는 대학교의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학과에서 장서개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론적인 내용들이 상당 부분 외국의 교과서에 많이 의존할 수 있으나, 우리 도서관 현장의 현실적인 상황의 반영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교과목명의 변화가 반드시 교육내용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다시 말해서 교과목명과 실제로 제공되는 교육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교육기관에서 가르쳐지는 내용과 도서관에서 실행되는 장서개발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혀 보려는 것이다.

II. 장서개발 교육의 변화

장서개발 (Collection Development)은 문자 그대로 도서관의 장서를 개발하는 데에 관련된 활동들을 일컫는 용어로 선택정책의 결정 및 조정, 이용자 요구의 평가, 장서의 이용연구, 장서의 평가, 장서의 요구확인, 자료의 선택, 자원공유계획, 장서의 유지 및 폐기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다.¹⁾

이 말은 일반적으로 도서관의 장서는 계속 입수되는 자료 양의 증가로, 혹은 도서관은 성장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로 무계획적으로 자료가 누적되는 것이 아닌 뚜렷한 계획 하에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개발이란 단어에는 발전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1) "Collection Development,"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83, 49.

장서개발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부터 통용되기 시작했으며, 그 이전에는 도서선택이나 자료선택 혹은 수서(Acquisitions)의 명칭이 사용되고, 이에 관련된 교육이나 교과서는 서평을 위시한 자료의 평가와 선택원칙, 주제별 도서선택이나 관종별 자료선택 등을 주로 다루었다.

1950년대에 간행된 한 사전은 도서선택을 “사서직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 중의 하나로 사서들의 선택 업무는 장서에 첨가될 도서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선정목록이나 독서리스트 등의 다른 목적으로도 도서를 선택하여야 한다”²⁾고 정의하고 도서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할당된 도서 구입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1970년대의 용어집은 도서선택을 도서관에 소장하기 위한 도서를 선정하는 과정³⁾으로 정의하고 수서업무를 도서선택, 발주, 입수, 축차간행물관리 및 제본으로 정의하고 있다.⁴⁾ 수서업무에 도서선택의 과정이 포함되므로 도서선택과 함께 ‘수서’도 과목명으로 사용되었다. 이 두 사전 모두 장서개발이라는 용어는 포함하지 않았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서 미국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대학도서관도 발전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또한 학술자료들의 수가 팽창하고 내용도 다양해진 때였다. 이때까지는 교수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주제배경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자료를 선택하는 사례들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예산과 출판물의 증가로 이들의 선택이 한계에 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서들이 자료를 선택해서 장서를 구성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할 상황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대학도서관 뿐 아니라 공공도서관이나 특수도서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으나 대학도서관에서의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고 한다.⁵⁾ 1960년대에 이미 도서관학교의 교과과정에 도서선택 과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의문이 생기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서선택이라는 용어에 회의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까지의 도서관들은 변화를 유도하거나 변화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보다는 상당한 기간을 두면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왔고,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선의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 사서들의 주요 역할이었던 것이다. 이때까지의 장서는 대부분 수동적인 수집기능의 결과로 변화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와는 달리 장서의 성장과 유지를 위하여 계획이 존재해야 하며 미래의 장서는 언제나 변화가 아닌 개발의 결과여야 한다는 의미⁶⁾의 장서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싹트게 되었다. 즉 도서선택이나 수서와 구분되는 의사결정 및 계획과정으로의 장서개발이

2) "Book Selection," Encyclopedia of Librarianship, 1968, 48.

3) "Book Selection," Librarians' Glossary and Reference Book, 1971, 98.

4) "Acquisition Work," *ibid.*, 28.

5) John Kennedy, "Education for Collection Development: Ending Before It Ever Started, or Only Just Beginning?" Education for Information, Vol. 16, No. 1(March, 1998), p. 46.

6) Charles B. Osburn, "Education for Collection Development," in Collection Development in Libraries, ed by Robert D. Stuart and George E. Miller, Jr. (Greenwich: JAI Press, 1980), p. 562.

필요하다고 인식된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에 간행된 용어집들도 장서개발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용어가 널리 통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서개발의 영역은 일반적으로 이용자 분석, 장서구성계획, 장서개발정책, 선택, 선택도구, 출판, 지적자유와 검열, 폐기 및 장서의 평가를 포함한다. 보존도 종종 장서개발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⁷⁾ 이러한 개념은 변화하는 상황에 적합한 장서관 사서들에 의해 관리되는 장서를 이용자와 연결하도록 되어있는 분명한 시스템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서 사서직의 교육도 개발이나? 수집이나?의 혼란을 겪은 후에 그때까지는 간과된 것처럼 보였던 전문직 프로그램에서의 장서개발 면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고 한다.⁸⁾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장서개발이라는 것은 이를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장서개발을 도서관 운용의 중심으로, 그리고 도서관과 이용자와의 관계에서도 중추가 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했고, 아울러 연구에도 사회학적인 접근으로 이론적이거나 학제적 연구를 필요로 하게 된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즉 이때까지는 도서관 조직의 내부에만 적용되어 왔던 시스템 접근을, 정보와 도서관학의 사회학적인 면을 연결자와 실체로 해서, 정보세계와 이용자들 사이의 중추로써 도서관에 적용해야만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⁹⁾

1984년에 출판된 용어집에는 장서개발을 '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장서를 구성하기 위한 장서수집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과정¹⁰⁾으로 정의하고, 1990년대에 개정할 때에는 장서개발이라는 용어가 장서의 심도 및 질적인 수준까지도 요구하며 홍보나 직원 훈련을 통한 장서의 활용을 위한 관련 활동까지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의 경제적 상황이 비교적 도서관 장서의 개발을 가능케 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 도서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줄어들고 도서관 자료의 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도서관이 장서에 대해서 하는 일이나 해야할 일들을 기술하는 데에 장서개발이 적합한 용어가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개발이란 단어는 새로운 현실이 요구하는 점차 한정되어 가는 자원의 관리보다는 성장과 노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장서관리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¹¹⁾ 장서

관리는 거의 비슷한 의미이나 효율적인 자원의 관리와 보존을 보다 강조하고 선택이 덜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앞에 언급한 ALA의 정의에 따르면, 장서관리란 장서개발에서 구체적으로 수량적 기법 (통계분석, 비용-효과연구, 등)의 적용을 지칭하는 데에 사용되는 용어이

7) Peggy Johnson and Sheila S. Intrner, ed. *Recruiting, Educating, and Training for Collection Development*, (Westport: Greenwood Press, 1994), p. 129.

8) Osburn, *op. cit.*, pp. 562-563.

9) *ibid.*, p. 567.

10) "Collection Development," *Harrod's Librarians' Glossary and Reference Book*, 1984, 95.

11) Kennedy, *op. cit.*, pp. 46-47.

다.

장서개발에서 장서관리로 변화한 것은 장서개발이 수집, 선택 및 장서구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장서관리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방침, 계획, 분석 및 협력활동을 포함하게 된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장서관리는 예산, 공간 및 직원이 한계에 달한 때에 장서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부족한 자원을 관리한다는 것으로, 도서관 장서를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고, 지역 및 국가적인 정보요구를 위한 자원 공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손상되기 쉬운 지식의 기록을 보존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다.¹²⁾

두 용어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오늘날에는 장서관리가 보다 적절한 용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적인 의미로 장서관리에서 수서는 제외되나, 현실적으로는 수집 및 보존을 포함하고 아울러 홍보 및 자금모금, 그리고 전자환경에서는 단순한 수집만이 아닌 문헌의 생산 및 배포의 역할도 최근에는 주장되고 있다.¹³⁾

용어의 변천은 도서관 자체의 요인보다는 기술발전의 결과로 가능해진 다양한 형태의 자료의 출현과 새로운 통신기술과 이용 가능한 기술, 아울러 이러한 변화로 야기된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 등 사회적 환경 요인들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방법에서 한 걸음 나아가 관리적인 면으로의 접근이 강요된 듯 하나, 기본적인 원칙이나 이론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또한 최근에 등장한 정보자원관리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라는 용어도 장서관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두 용어를 비교하면, 오늘 날 사용되는 장서관리란 전통적 의미의 도서관 환경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는 다른 기관들이 만들어 내는 자료를 수집하는데 치중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정보자원의 관리란 경우에 따라서는 중심이 되는 장서 없이 조직의 모든 상황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이 때에는 정보자원관리자가 조직 내부와 외부의 정보원을 확인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장서관리나 정보자원관리 모두 목표로 하는 것은 봉사 대상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¹⁴⁾

장서개발의 교육에 관해서는 상반되는 주장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서개발은 가르쳐질 수 없는 기술이라는 의견과 가능하다고 믿는 견해가 그것이다. 가르쳐질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장서개발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분되고 그 기술은 교육기관에서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는 경우는 도서관 자료의 선택은 전문직의 고유 특권이고 전문직 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장서개발의 면허를

12) Joseph J. Branin, *Collection Management for the 1990s* (Chicago : ALA, 1993), p. x.

13) Kennedy, *op. cit.*, p. 47.

14) G. Edward Evans,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Collections* (Englewood: Libraries Unlimited, 1995), p. 20.

갖는 것으로 이는 장서개발을 할 수 있다는 자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¹⁵⁾

장서개발에 요구되는 능력이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단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또한 사회와 이용자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장서의 개발이 사서들의 의무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장서개발의 성공여부는 전문직의 가치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 범위 내에서 도서관 자체, 출판계, 관리 및 예산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이해하는 것을 요구¹⁶⁾하므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떤 교육기관이라도 유능한 장서개발자를 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개개 도서관에 따라 목적과 이용자 뿐만 아니라 소장된 자료와 이용 가능한 자료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모두에 익숙해지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를 장서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일 것이다.

III. 장서개발 교과목의 분석

도서관이 사회적 기능과 아울러, 그것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모체기관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역할과 봉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에 걸쳐서 잘 구성된 도서관의 장서가 필수 요인이다. 장서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이론 및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장서개발 교육의 목표일 것이다.

1. 교과목명의 변화

1950년대 말에 시작된 도서관학과들은 1960년대까지는 거의 모두 도서선택(론)의 과목을 필수로 전통적인 도서의 평가 및 출판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였다. 이때까지는 4개의 학과만이 개설되어 있었고 초창기 시대의 교육으로 주목할만한 현상은 볼 수 없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까지도 도서관학과의 수는 10개학과로 그 수가 많지 않았고, 도서선택보다는 자료선택이라는 과목명을 선호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까지 이어졌다. 도서

15) Osburn, op. cit., p. 561.

16) Johnson and Intner, op. cit., p. 96.

선택이 자료선택으로 바뀐 것은 도서관 사서들이 선택할 대상들이 도서보다 광범위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선택한다는 의미가 분명하지만, 도서관 내외의 상황을 반영하였다거나 현실적인 요구를 고려한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989년에 30개학과 중에서 조사된 24개 대학교의 도서관학과 교과과정에 따르면,¹⁷⁾ 24개학과 중에서 자료선택과 유사과목을 필수로 한 학과가 16개 학과였고, 나머지 8학과가 선택으로 하였다.

가장 많이 채택된 교과목명은 자료선택(론) (필수 11개학과, 선택 4개학과), 장서개발(론) (필수 2개학과, 선택 1개학과), 자료선택구성론 (필수 1개교, 선택 1개교), 도서관자료 (필수 1개학과, 선택 1개학과), 장서구성론 (필수 1개학과) 및 자료구성론 (선택 1개학과)의 순이다. 1980년대에 장서개발을 교과목명으로 채택한 학교는 3개교에 불과하였다.

1999년 현재로는 26개의 문헌정보학과들 중에서 장서개발 관련과목을 필수로 지정한 학과는 2개 학과이고 나머지 24학과가 모두 선택으로 개설하였다.

과목명은 장서개발(론)이 12개 학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이 6개학과의 장서구성(론), 그리고 자료선택론을 2개학과가 채택하였다. 그 이외에 사용된 교과목명은 장서구성과 자료선택론, 정보자료수집론, 정보수집과 이용, 정보자료구성론, 자료개발론 및 정보자료선택의 이해가 각기 1개교에서 사용되었다. 1980년대에 가장 많았던 자료선택론을 2개학과가 사용하는 반면에, 3개학과에 불과했던 장서개발이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17) 『도서관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9. pp.39-40.

<표 1> 교과목명의 변화

	1980년대		1990년대	
	필수학과수	선택학과수	필수학과수	선택학과수
자료선택(론)	11	4	0	2
장서개발(론)	2	1	0	12
자료선택구성론	1	1	0	0
도서관자료	1	1	0	0
장서구성론	1	0	0	6
자료구성론	0	1	0	0
자료개발론	0	0	1	0
장서구성과자료선택론	0	0	0	1
정보자료구성론	0	0	0	1
정보수집과 이용	0	0	0	1
정보자료선택의 이해	0	0	0	1
정보자료수집론	0	0	1	0
<계>	16	8	2	24

2. 교육의 내용

장서개발의 교육을 위하여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지는 가를 조사하려면 각 교수의 강의 계획서의 분석이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장서개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의 주요도를 파악하고자 교과목의 개요를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강의 계획서에는 한 학기 동안 다루어질 모든 내용들이 망라해서 포함될 수 있으나 교과목개요에는 각 교수들이 중요시하는 내용들이 보다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적으로는 아니나, 교과목의 개요가 교육의 목적과 보다 중요시되는 내용, 나아가서 교과목의 방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총 32개학과 중에서 교과목 개요를 입수할 수 있었던 19개학과의 개요를 분석한 결과는 '장서구성 (개발)의 이론과 실제'를 언급한 학과가 16개 학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자료의 선택', '선택도구' 및 '수서'로 14개학과가 포함시키고 있다. '장서개발'이나, '선택' 및 '수서'의 '정책'을 포함시킨 학과가 9개 학과이고, '장서의 평가' 및 '출판'이 7개학과, '자료와 도서의 평가' 및 '자료선택기준'이 6개학과에 포함되고 5개학과가 '관종별 자료의 선택', '주제별 자료의 선택' 그리고 '제작' 및 '폐기'를 포함시키고 있다. '예산관리'와 '주문'은 3개학과, '정보요구 파악'과 '이용자 연구'가 '도서관의 환경', '정보자원의 공유' 및 '전자자료'와 함께 2개교의 교과목 개요에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적어도 1개교가 비중을 두고 다루는 내용들은 '보관',

‘정보매체의 발달과 유형’, ‘이용행태의 분석’, ‘저작업계’, ‘협동개발계획’, ‘서고계획’, ‘수집자료 관리’, ‘서적판매’, ‘비인쇄물의 선정원리와 방법’, ‘검열’, ‘장서의 갱신’, ‘유통과정’ 및 ‘새로운 매체’ 등이다.

장서개발을 구성하는 과정을 근거로 해서 교과목의 내용을 비교하면 ‘정보요구과약’, ‘이용자연구’ 및 ‘도서관의 환경’의 표현으로 ‘community analysis’를 포함시킨 학과가 4개 학과이고 ‘선택정책’은 9개학과, ‘선택’과 ‘수서’는 가장 많게 14개학과가, ‘폐기’ 5개학과 및 ‘장서의 평가’는 7개교의 교과목 개요에 포함되어 있다.

<표 2> 장서개발 교육의 내용

내 용	학과수	내 용	학과수
장서구성(개발)의 이론과 실제	16	도서관의 환경	2
자료의 선택	14	정보자원의 공유	2
선택도구	14	전자자료	2
수 서	14	보 관	1
정 책	9	정보매체의 발달과 유형	1
장서의 평가	7	이용행태의 분석	1
출 판	7	저작업계	1
자료 및 도서의 평가	6	협동개발 계획	1
자료선택기준	6	서고 계획	1
관종별자료의선택	5	수집자료관리	1
주제별자료의 선택	5	서적판매	1
제적 및 폐기	5	비 인쇄물의 선정원리와 방법	1
예산 관리	3	검 열	1
주 문	3	장서의 갱신	1
정보요구과약	2	유통과정	1
이용자 연구	2	새로운 매체	1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지난 10년 동안 장서개발 교육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교과목명의 변화와 관련 과목들이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바뀐 것이다. 선택과목으로의 변화는 개개학과의 선택보다는

전반적인 대학교육의 변화로 야기된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조사된 모든 학과들이 선택과목으로 장서개발이나 유사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므로, 교과목의 중요도와 관심의 감소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장서개발과 관련된 과목명의 변화가 현실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외국의, 특히 미국의 교과서나 그곳에서의 실행을 근거로 할 것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서관 현장에서의 요구나 실행에서 우리의 현실은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아직 자료선택의, 보다 정확하게는 도서선택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실은 교육에도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과목명에는 장서개발이 우세하지만, 교과목의 분석 결과는 선택과 수집에 치중되는 경향이 보이고 관리적인 접근의 언급은 많지 않으므로 여전히 장서구성이나 자료선택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2. 제언

정보매체의 변화나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장서의 개념이 소유한 자료에서 접근 가능한 자료로 바뀔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장서의 중요성에서 큰 변화는 없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서관은 장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장서개발에 관련된 전통적인 기본 이론이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그러나 결코 장서개발의 내용이나 방법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표현상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자료선택이나, 장서구성 혹은 장서개발은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장서의 선택, 유지가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환경 및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관리능력과 새로운 매체를 다룰 수 있는 지식과 기술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사서직 교육 내용의 대부분에서 이론과 실제의 균형에 대한 논란이 많으나 장서개발 만큼, 이론보다는 실행이 중요하게 보이는 현실적이고도 가시적인 분야도 많지 않을 것이다. 이용자들이 도서관으로 느끼고, 받아들이고 실제로 접근해서 이용을 하는 경우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봉사를 제공받을 때에도 장서의 존재는 체험되는 것이므로 사서들에게 요구되는 이론과 지식은 현실의 세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서와 관련된 지식세계, 출판계, 매체 그리고 이용자라는 엄연한 현실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이해와 지식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고 이와 함께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요구되는 것들이 짧은 기간에 갖추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사서들의 자료, 매체, 지식,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는 어쩌면 사서직의 정체성을 가능케 하는 요인들일 수 있다. 사서들이 이러한 요건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기에 장서구성에서 이용자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구입하는데 급급하다거나, 자료를 선택할 때에 이용자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현재

우리의 상황이 미국의 1960년대 도서선택의 시기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장서개발이라는 용어가 도서관의 장서를 발전시킨다는 의미를 강하게 풍기기 때문에 자칫 자료 선택이나 장서개발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용자에 대한 이해가 소홀히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도서관 자체가 기록자료의 수집과 그것의 이용 극대화라는 사명이 부여된 사회적 기관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으며, 봉사해야 할 이용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집된 도서관의 장서는 그 존재의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장서개발은 이용자들에 대한 이해 없이는 무작위적이고 무계획적으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대형서점과 구분 없이 안되게 거대하게 쌓여진 자료 집단에 불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서개발의 첫 단추는 대상 이용자들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할 이용자들의 파악으로 시작이 되어야 하고 이론적으로도 표현에는 차이가 있으나 거의 비슷한 의미인 이용자 연구나 분석, 혹은 이용자 조사 등이 개발 과정의 시작으로 제시된다. 현재의 장서개발 교육에서 이용자 연구라는 주제가 중요시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4개학과의 과목 소개에 언급된 것을 미루어 볼 때 이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론적으로 교육되고 배운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얼마나 공감대를 이루어 실제로 반영이 되는 가 하는 점이다. 물론 우리의 도서관 상황이 장서의 개발은 고사하고 가장 절실한 요구 자료만도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화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은 있지만, 선행되어야 할 사전 정비 작업으로 볼 수 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을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 이론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이론의 실천 또한 무시할 수 없고 이론의 역할이 실행의 개선이므로 가르쳐진 이론들이 도서관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용자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조사나 이용자 및 그들의 요구 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에서 적용하려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장서개발은 이용자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서관 현장의 장서개발에서 자료의 선택이나 수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도서관의 당면한 업무로 상당기간에 걸쳐서 나름대로의 과정이나 방법을 고안해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관심이 치중된 분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당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론과 실제의 골이 가장 깊은 것이 선택이나 개발과 관련된 정책과 자료의 폐기 및 장서의 평가로 보인다. 관리적인 접근의 특징인 장서개발과 관련된 선택의 방침이나 개발의 정책

혹은 수서정책의 당위성에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나, 장서개발의 일관성을 위해서나 종사자들에게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필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 방침이나 정책은 도서관의 설립 이념으로부터 파생된 목표와 목적, 장·단기 계획을 근거로 해서 모든 업무 수행자들이 따라야 할 지침인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장서개발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도서관 업무와 관련된 적절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그 후에 필요한 업무 절차나 규정과 규칙들이 제대로 만들어 질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 전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많은 경우에 정책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적당한 근거나 장기간의 심사숙고 없이 즉흥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그 하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절차나 규칙 등은 당면한 업무에 필요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수립에 대한 이해와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규정이나 절차도 계획의 일부이고 전체적인 도서관 시스템과 세부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필요한 것이다. 장서개발의 교과서나 이것을 가르치는 교실에서의 언급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도서관 관리자나 사서들이 도서관 현장에서 실천하는 과제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이론을 가르치는 교육자들과는 달리 현장의 사서들에게 자료의 폐기와 장서의 평가도 익숙하지 않은 개념들이다. 자료의 선택이나 장서의 구성과 달리 장서의 개발은 질적인 장서의 유지라는 의미를 내포함으로 불필요하거나 가치 없는 자료의 소장은 장서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폐기하는 것은 장서개발 과정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장서의 수로 도서관을 평가할 정도로 수적인 면을 강조해온 전통으로 자료의 폐기는 소수의 특수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 또는 장소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 폐기는 불필요한 자료를 없애고 기록까지 없애는 것이나, 가끔 이용되는 자료를 보존 서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도 필요한 것이다. 장서란 활발하게 이용되어 이용자들이 가치 있다고 평가할 때에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의 목적과 기능, 이용자들의 실제 이용을 고려하여 자료의 위치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자료를 없애으로써 장서의 질을 높이고,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식과 사고의 전환은 여기에서도 요구되고 있다.

장서의 평가 개념도 독립된 단일의 개념이기보다는 장서개발 과정의 일부로, 특히 폐기나 이용자 연구와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평가라는 개념이 도서관의 목표와 목적, 이용자의 요구와 수준, 자료의 가치 및 실제 이용도 등 다양한 기준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상당히 복잡한 작업인 것이다. 이 과정들에도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론에서 가르쳐지는 내용들이 우리의 현실과는 다른 상황에서 연구되고 실행된 것이기에, 적용상의 문제와 우리의 기준이나 방법들을 모색하여야 할 때가 왔다.

외국의 것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무조건 배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서개발에서 선택과 보존의 경우에 협력 프로그램의 성공사례를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 성공사례는 적지 않다. 그들의 이론과 실행을 이해하고 필요한 것들은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장서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에 가능한 한 많이 신속하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협력 수서나 공동 보존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용자가 요구하는 자료들이나 입수하고, 이용자들만이 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식에서 빨리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도서관 사서들이 도서관의 상황과 이용자들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이 지난 후 능숙하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용자들을 위한 장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장서개발에서 우리보다 긴 역사와 경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된 연구결과들은 장서개발의 업무 수행자를 의사결정자로 간주하면서 관리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아마도 장서관리라는 용어의 출현 및 사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장서개발업무에서 의사결정자들에게 부여되는 요구는 상당한 것으로, 그들이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려면 자신의 도서관의 임무와 절차에 대한 고도의 이해와 출판의 경제적인 면에도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나¹⁸⁾ 장서개발 사서들은 보다 능숙하게 예산의 정당성과 비용 분석들을 제시해야만 할 입장에 처해 있으며 오늘날의 장서개발 사서는 재정적인 면에서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정치적인 감각 및 전자자료의 이용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암시하면서 성공요인으로 관리 및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도서관거래의 지식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시되고 있다는 의견들이다.¹⁹⁾

아울러 Budd 와 Bill은 장서관리의 교육자와 실무자들의 의견을 서베이한 후에 결론적으로 “교육자들이 매체와 정보기술, 도서관의 정치적 및 재정적 환경, 장서개발과 평가 및 정보에 접근하는 데에 미치는 외부환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재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행에 친숙해야만 한다”고 결론지었다.²⁰⁾ 장서개발을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일 것이다.

앞으로도 장서개발의 중요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장을 위한 구입과 전자적 접근에 의존할 것인가? 이미 있는 장비, 소프트 웨어 및 인적 기술과의 호환성을 염두에 두고 어떤 형태로 구입할 것인가?

18) Maureen L. Gleason, "Training Collection Development Librarians," *Collection Management*, Vol. 4, No. 4 (Winter, 1982), p. 2.

19) Maria Otero-Boisvert, "The Role of the Collection Development Librarian in the 90s and Beyond,"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Vol. 18, No. 3/4 (1993), p. 162.

20) John M. Budd and Patricia L. Brill, "Education for Collection Management: Results of a Survey of Educators and Practitioner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ol. 38, No. 4 (October, 1994), p. 352.

가?

구입협정과 라이선스 협상, 접근자료의 경우에 사용을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리고 극도로 사라지기 쉽고 변화무쌍한 인터넷 세계에서 변화를 어떻게 조정하고 알려야 할 지에 대한 기술이 요구될 것이라는 것이다.²¹⁾ 도서관의 다른 업무에서와 마찬가지로 장서개발을 위해서도 사서들은 변화하는 환경, 매체의 변화 및 정보 기술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술과 목적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전제로 해야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Osburn은 장서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²²⁾

정보 및 출판계에 대한 지식

정보를 서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출판 및 정보에 관련된 이용자 커뮤니티에 대한 지식

정보의 세계와 이용자 커뮤니티의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원인들에 대한 이해

정보의 세계와 이용자 커뮤니티를 모니터할 수 있는 능력

이들 각각의 변화징후에 대한 지식,

정책과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질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

장서개발 정책과 절차를 도서관의 운용에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친숙한 선택, 선택도구, 자료의 평가나 수서 등에 적용되는 것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본래의 임무, 형태, 그리고 자료를 등안시 하지말고 전통적인 인쇄자료의 지속적인 가치를 적극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는 충고도 있다. 이 인쇄자료들은 장서개발 임무에 당분간은 중심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²³⁾

사서의 사명이 기록된 지식이나 자료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매개자의 역할이므로 자료에 대한 지식은 사서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다른 전문직이나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달리 사서직의 전문지식은 지식과 학문 분야의 자료에 대한 지식으로, 그것을 토대로 하여 유용한 자료를 모아서 효율적으로 이용시키는 것이 사서직의 고유 영역인 것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적절한 장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이용자들에게 도서관과 사서직의 가치를 일깨워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장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장서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학과의 목표 중의 하나여야 한다.

21) Kennedy, *op.cit.*, p. 52.

22) Osburn, *op. cit.*, p.565.

23) Otero-Boisvert, *op.cit.*, p. 166.

장서개발의 능력은 교육기관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건전한 상식과 공정한 평가 능력, 성숙한 판단력 등 짧은 기간에 배양될 수 없는 요인들이 필요한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요소들이 교육기관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서관학과와 문헌정보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장서개발의 능력은 단기간에 배양될 수 없고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하는 평생의 과업인 것도 함께 일깨워줘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론과 이론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장서개발은 사서직 교육에서 주요 과목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학부 과정의 교육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장의 사서들에게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장서개발과목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대부분 교육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교육되는 이론과 이론이 적용되는 실행 사이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노력이다. 즉 도서관에서는 이론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교육기관에서는 현장의 요구를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